해결사 이정현, 천금같은 버저비터

〈KGC〉

KGC, 오리온 홈경기 8연승 저지
'김지후 21점' KCC는 전랜 완파

KGC가 이정현의 결승골로 대역전극을 연출했다.

KGC는 7일 고양체육관에서 벌어진 오리온과의 '2016~2017 KCC 프로농구' 2라운드 홈경기에서 이정현의 23점·9어시스트·4리바운드 맹활약을 앞세워 101-99로 역전승했다. 오리온의 홈 8연승을 저지한 KGC(11승5패)는 3위를 지킨 반면 오리온(12승4패)은 2위로 내려앉았다. 1위는 13승4패의 삼성.

외국인 포인트가드를 운영하는 양 팀 감독은 승부처를 4쿼터로 봤다. 오리온 오데리언 바셋, KGC 키퍼 사익스가 아직은 한국농구에 적응해나가는 단계라 경기력이 들쑥날쑥해서다. 그 대신 탄탄한 국내선수층을 바탕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미였다. 오리온 추일승 감독은 "1·4쿼터에서 외국인선수와 국내선수의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고, KGC 김승기 감독은 "그동안 우리가 이긴 게임을 보면 4쿼터에서 승부를 봤다. 2·3쿼터를 어떻게 버티느냐가 관건이다"고 내다봤다.

결국 KGC의 해결사 이정현이 승부를 결정지었다. 시종일관 2~3점차로 끌려가던 KGC는 경기 종료 3초를 남긴 상태에서 사익스의 자유투 성공으로 99-99 동점을 만든 뒤 오리온의 작전타임 이후 이어진 마지막 공격에서 이정현의 결승 버저비터로 2점차 승리를 완성했다.

한편 전주에선 KCC가 21점을 뽑은 김지후를 비롯한 4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데 힘입어 제임스 켈리(23점·6리바운드)가 고군분투한 전자랜드를 77-61로 완파했다. KCC는 5승째(11패)를 챙겼고, 전자랜드는 8패째(9승)를 안았다.

고양 |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KGC 데이비드 사이먼(가운데)이 7일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오리온과의 원정경기 도중 김동욱(왼쪽)과 이승현의 수비 위로 골밑 슛을 시도하고 있다. 고양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최희진 19점…삼성생명, 단독 2위 점프

수비 재정비 효과…KDB생명 제압

삼성생명 임근배 감독은 7일 용인체육관에서 벌어진 '삼성생명 2016~2017 여자프로농구' 3라운드 KDB생명과의 홈경기를 앞두고 팀 컬러 재정비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았다. 임 감독은 "지난 시즌 수비를 앞세운 우리 팀은 이번 시즌 들어 공격을 좀더 강화했다. 그런데 선수들이 뭔가 착각한 것 같다. 수비에 공격을 덧붙이는 구상이었는데, 공격하느라 수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2라운드까지의 경기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충분히 쉴 시간이 생겨 선수들과 미팅을 통해 '다시 강력한 수비를 펼쳐보자. 그러면서 공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자'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은 이날 KDB생명을 맞아 3쿼터에 팀 컬러 재정비 효과를 톡톡히 봤다. 1쿼터를 14-17로 뒤진 삼성생명은 2쿼터 들어 수비력이 살아난 덕분에 31-31 동점을 만들 수 있었다. 삼성생명은 3쿼터 시작과 동시에 강력한 수비를 앞세워 5분간 KDB생명을 무득점으로 묶었다. 그 사이 공격에선 최희진(19점·5리바운드)이 3점슛 3개를 혼자 터트리는 등 선수들의 고른 득점이 이어지면서 47-31, 16점차로 달아났다. 3쿼터를 56-44로 마친 삼성생명은 4쿼터 KDB생명의 맹추격에 휘말려 종료 1분여를 남기고 74-68까지 쫓겼으나, 최희진이 자유투 2개 중 1개를 성공시켜 다시 7점차로 달아나며 승리를 예약했다.

75-72로 이긴 삼성생명은 6승6패로 승률 5할에 복귀하며 단독 2위로 올라섰다. 반면 KDB생명(5승7패)은 4위로 미끄러졌다.

용인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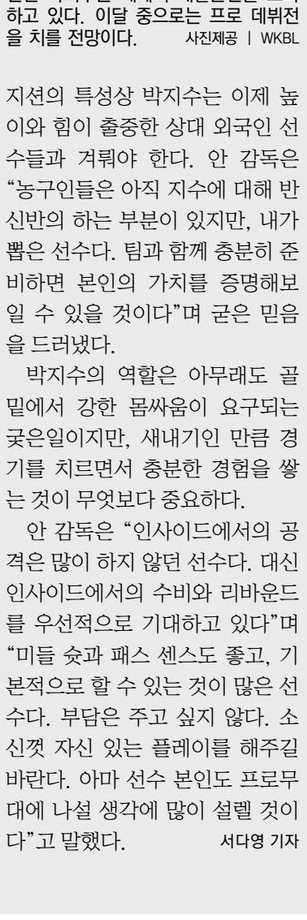


삼성생명 최희진

특급신인 박지수, 성탄 선물될까

〈KB스타즈〉

재활 끝내고 러닝·웨이트 훈련
안덕수 감독, 12월 중 데뷔 구상



오른발 부상을 입은 KB스타즈의 특급신인 박지수는 체계적 재활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는 프로 데뷔전을 치를 전망이다. 사진제공 | WKBL

여자프로농구 특급신인 박지수(18·195cm)는 KB스타즈의 겨울을 포근하게 만들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올해 신인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KB스타즈의 유니폼을 입은 박지수의 데뷔가 가까워지고 있다. 박지수는 11월 태국에서 열린 18세 이하(U-18)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를 치르면서 오른쪽 발등 인대가 늘어나 재활치료를 받았다. 지난 5일 병원에서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는 진단을 받았고, 6일부터 러닝 및 웨이트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앞으로 3~4일 동안은 체력과 근육을 우선적으로 보강한 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팀 훈련에도 합류할 계획이다. 12월 중으로는 반드시 데뷔시킨다는 것이 안덕수 감독의 뜻이다.

현재 4승7패로 5위까지 뒤처진 KB스타즈는 박지수의 데뷔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최근 3연패에 빠지면서 분위기도 많이 침체된 데다, 골밑을 지켜줄 외국인 선수들의 기량도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시즌 최고 기대주로 꼽히는 센터 박지수가 가세한다면 여러모로 팀에 큰 힘이 된다. 하지만 서두르지는 않을 생각이다. 안 감독은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2~3분 정도 뛸 것이라면 내보내지 않는 것이 낫다. 15~20분을 뛸 수 있을 정도까지 준비한 뒤 선수와 상의해 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홈에서 화려하게 데뷔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특히 우리가 12월에 홈경기가 많다"며 웃었다.

물론 박지수가 고교시절 만큼의 뛰어난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것이란 장담은 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아마추어와는 실력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프로무대인데다 4, 5번 자리를 맡아야 하는 센터 포지션의 특성상 박지수는 이제 높이와 힘이 출중한 상대 외국인 선수들과 겨뤄야 한다. 안 감독은 "농구인들은 아직 지수에 대해 반신반의 하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뽑은 선수다. 팀과 함께 충분히 준비하면 본인의 가치를 증명해보일 수 있을 것이다"며 굳은 믿음을 드러냈다.

박지수의 역할은 아무래도 골밑에서 강한 몸싸움이 요구되는 궂은일이지만, 새내기인 만큼 경기를 치르면서 충분한 경험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 감독은 "인사이드에서의 공격은 많이 하지 않던 선수다. 대신 인사이드에서의 수비와 리바운드를 우선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미들 슛과 패스 센스도 좋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선수다. 부담은 주고 싶지 않다. 소신껏 자신 있는 플레이를 해주길 바란다. 아마 선수 본인도 프로무대에 나설 생각에 많이 설렐 것이다"고 말했다.

서다영 기자

스포츠

김보성 격투기 데뷔전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다"

일본의 격투기 베테랑과 스페셜 매치
권아솔·마이티 모 방어전도 관심집중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벌어지는 XIAOMI ROAD FC 035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탤런트 김보성의 종합격투기 데뷔전과 권아솔, 마이티 모, 차정환의 타이틀방어전 등 3개의 타이틀매치가 준비됐다. 최근 복잡한 정국과 주말 촛불집회라는 흥행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만 ROAD FC는 대회의 완벽한 성공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오후 5시부터 MBC스포츠플러스에서 생중계되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관심이 큰 3개 매치의 관전포인트를 모았다.

●스페셜 매치 웰터급 김보성 VS 콘도 테츠오

처음으로 케이지에 오르는 김보성(50·압구정짐)의 상대는 일본의 격투기 베테랑이다. 17번이나 경기를 했고 유도를 10여 년간 수련한 전문가다. 아마추어 김보성의 상대로는 버겁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열세라고 보는 이유다. 심장병 어린이들을 돕겠다는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진 김보성의 준비는 철저했다. 경기 전에 사실상 승패를 가름하는 감량도 완벽하다. 웰터급 계약체중에 2kg 초과상태다. 이 정도라면 계체량 통과는 문제없다. 몸에 무리가 없는 상태에서 완벽한 경기를 할 수 있다.

단 두 명이 케이지에서 상대가 쓰러질 때까지 싸우는 경기인 만큼 기술과 체력보다는 상대를 눕힐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 중요한 요소다. 김보성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마인드컨트롤도 많이 하고 있다. 훈련을 하면서 진심으로 파이터들을 존경하게 됐다. 상대 곤도 테츠오도 존경하지만, 경기 때는 물러서지 않고 싸울 것이다. 1분 안에 KO로 끝내겠다"고 장담했다.

●라이트급 타이틀전 권아솔 VS 사사키 신지

권아솔(30·팀강남/압구정짐)의 2차 방어전이다. 체중감량은 무리 없이 진행됐다. "미리 많이 빼놔서 3kg정도 남았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살이 많이 빠져서 예전에 맞춰놨던 정장이 모두 크다"며 충분한 감량을 했음을 알렸다. 덕분에 권아솔의 장점인 스피드가 살아난 것이 눈에 띈다.

승패의 결과가 부담스러운 한일전을 앞두고 "상대가 너무 약해서 동기부여가 부족했다. 하지만 경기에 나갈 때는 전쟁에 나가는 전사의 마음으로 싸우겠다.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주겠다. 사사키 신지는 주짓수가 특기인데 주짓수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레슬링이라든가 다른 기술들이 나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사사키 신지가 턱을 맞고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화끈한 경기로 KO승리를 거두겠다는 경기전략을 밝혔다.

●무제한급 타이틀전 마이티 모 VS 카를로스 토요타

9월24일 장충체육관에서 최홍만을 꺾고 초대 무제한급 챔피언이 된 마이티 모가 석 달 만에 방어전에 나선다. 10명의 많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마이티 모는 종합격투기를 직업으로 둔 직장인의 자세를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싸움을 좋아하냐고. 그럴 때마다 나는 아버지가 되어보라고 얘기한다. 이제 또 다른 싸움이 눈앞에 있다. 트레이닝에 큰 변화는 없다. 강해지기 위해 모든 부분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컨디션 조절에 초점을 맞춰왔다. 특별한 것이 있다면 내 아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조만간 아들은 복싱 경기에 데뷔한다. 나는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 내 앞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타이틀 방어전이 빠르게 잡혔지만 승리할 자신이 있다. 상대(카를로스 토요타)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ROAD FC 챔피언이고, 벨트를 가지고, 케이지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사람이다. 누구에게도 내 벨트를 넘겨주는 건 내 계획에 없다. 이것이 전부다. 경기 때 보자. 누가 벨트를 들고 케이지 밖으로 나가는지"라고 말했다.

한편 XIAOMI ROAD FC 035 김보성의 데뷔전 티켓은 인터파크에서 일반석만 구매 가능하다. ROAD FC는 김보성의 데뷔전 입장 수익과 김보성의 파이트머니를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전액 기부한다.

이밖에 벌어지는 XIAOMI ROAD FC 035 경기는 다음과 같다. ▲미들급 타이틀전 차정환 VS 최영 ▲밴텀급 김수철 VS 시미즈 슌이치 ▲라이트급 브루노 미란다 VS 김승연 ▲라이트급 박원식 VS 난딘에르덴 ▲-80kg 계약체중 이은수 VS 쿠얼반쟝 투쿼스빠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김보성 권아솔

대한체육회 '도쿄 프로젝트'를 아시나요

내년부터 보조금 9억2000만원 투입
라이벌 일본 견제 장기 마스터플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체육계도 자유롭지 않다. 온갖 비리와 여러 추문들로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다. 캐면 캘수록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새로운 의혹들이 끊임없이 추가된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한다. 비록 말 많고 탈도 많았지만 엘리트·생활체육이 통합된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도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일명, '도쿄 프로젝트'다.

체육회는 2020년 일본 도쿄에서 열릴 하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가보조금 예산 9억2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술·동작분석, 전력분석, 심리상담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18명이 각 종목 선수단을 돕는다. 동계종목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겨냥해 2015년부터 전담팀이 활동 중이지만 하계종목이 정부지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의미는 더 크다.

하계종목 인사들은 오래 전부터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솔직히 선수들의 투지와 투혼만으로 버티기에 한계가 뚜렷했다. 물론 반짝 지원은 있었다. 간간히 국내에서 열린 국제대회를 앞두고 체육회가 일부 종목을 지원해 몇몇 선수들이 해외전지훈련을 다녀오는 혜택(?)을 받곤 했다. 그러나 이는 꾸준한 비전은 아니었다. 금세 지원이 끊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수 없는 구조였다.

다행히 시스템이 바뀔 조짐이다. 8월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종합순위 8위(금9·은3·동9)를 기록했다. 나쁘지는 않았어도 만족할 수는 없었다. '영원한 라이벌' 일본이 금12·은8·동21로 6위에 오른 장면은 아주 부러웠다. 특히 육상과 수영 등 기초종목에서의 선전은 일부 종목에서 '싹쓸이'의 힘을 발휘한 한국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1~2년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가 어떤 결실을 맺는 지 확실히 느낀 계기였다.

한 체육인은 "어쩌면 (9억2000만원이라는) 보조예산이 모두가 고른 혜택을 받기에 턱 없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내년이 첫 스텝이란 점이 중요하다. 이번을 계기로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길 희망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